



배알도 별빛야영장 카라반



구봉산숲속야영장



금천계곡야영장

“숲·별빛·계곡 품은 광양에서 힐링하세요”

광양시가 숲·별빛·계곡을 주제로 한 야영장 3곳을 운영하며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히고 있다.

시는 구봉산숲속야영장, 배알도별빛야영장, 금천계곡야영장을 통해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캠크닉’ 이용자부터 숙련 오토캠퍼까지 다양한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 환경을 마련했다.

각 야영장은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구봉산숲속야영장은 숲속 휴식형, 배알도별빛야영장은 바다·별빛 체험형, 금천계곡야영장은 계곡 힐링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구봉산 자락에 조성된 구봉산숲속야영장은 자연 친화적 환경과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도심형 야영장이다.

야영데크 28면과 트리하우스 5동 규모로 조성됐으며 웰컴센터, 취사대, 손수레 보관소, 무료주차장 등을 갖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숲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광양만이 내려다보이는 개방감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며, 야간에는 도시 불빛이 만들어내는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캠핑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텐트·테이블·의자가 구비된 전용 사이

구봉산숲속·배알도별빛·금천계곡 야영장 운영 지속가능한 캠핑모델 구축… 실시간 예약 가능

트를 통해 별도 장비 없이도 캠핑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 캠핑 입문자와 당일 이용객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웰컴센터에서는 간단한 먹거리와 캠핑 용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외부 음식 반입과 인근 상권 배달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 3월 개장한 배알도별빛야영장은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조성된 복합형 야영장이다.

카라반 10대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총 100면 규모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며, 샤워장·개수대·화장실·세족장·커뮤니티센터 등 기본 시설을 갖췄다.

야영장에는 버스킹 공연장, 넷트 체험 시설, 어린이 집라인, 바닥분수 등 체험 시설도 함께 조성돼 가족 단위 이용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낮에는 섬진강변과 해안 경관을 즐기고,

밤에는 노을과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야영장 명칭에는 지역의 인문학적 의미도 담겼다. 인근 정병옥 가옥에 보존된 운동주 시인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상징성과 배알도 풍광을 반영해 ‘별빛야영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금천계곡야영장은 백운산 4대 계곡 가운데 하나인 금천계곡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곳에 조성된 자연 밀착형 오토캠핑장(데크 14면·파쇄석 10면)으로, 관리동·주차장·개수대·화장실 등 기본 시설을 갖췄다.

지역 주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자연과 관광,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캠핑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세 곳의 야영장은 모두 캠핑 예약 플랫폼 ‘캠핏’을 통해 실시간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숲속 감성 캠핑부터 별빛 체험형 캠핑, 계곡 힐링형 캠핑, 가볍게 즐기는 캠크닉까지 이용자의 목적과 숙련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야영장별 특성을 살렸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체류형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여수시, 섬플루언서 청년과 함께 섬 매력 알린다

총 36명 모집...7월까지 활동
섬플루언서 12개 섬 홍보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 기대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과 섬 주민이 함께하는 ‘여수 섬플루언서 육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 등 청년이 주도 이면 사업은 지역 대학생 등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여수 섬의 매력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주요 12개 섬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섬플루언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영상 콘텐츠는 힐링 방문 등을 포함한 섬 맛집과 명소를 주제로 제작되며, 섬 관광

홍보는 물론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된 콘텐츠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홍보 채널과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될 예정으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수시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총 36명 규모로 선발한다.

활동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로, 매월 1편 이상의 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1

인당 8만원의 섬 활동비가 지원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의 감각적인 시선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통해 여수 섬의 숨은 매력을 새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섬박람회의 불조성과 섬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여수시 섬박람회지원과 섬미래정책팀(061-659-3456)으로 하면 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순천시, 근대문화유산 지구 내 유산 안내판 설치

기독교역사박물관·선교사 가옥 등 11개

순천시는 최근 매산동 성지순례길 근대문화유산 지구 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산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유산 안내판은 기독교역사박물관, 코잇 선교사 가옥,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고산의원장 가옥, 순천중앙교회, 조지와조 기념관, 매산관, 옛 프레스턴 가옥, 로저스 선교사 가옥 등 총 9곳에 11개소로, 방문객들이 주요 유산을 쉽게 찾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또 단순 안내 기능을 넘어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경관 개선을 위해 입간판 주변에 화분을 함께 배치했다. 이를 통해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국가유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매산동 성지순례길은 지역의 근대 역사와 선교사의 발자취가 함께 담긴 공간으로, 근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추진 중이며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LED 설치 등 4000만원 투입

고흥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각 읍면에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비 등 총사업비 4000만원이 투입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LED 전등과 무선 리모컨을 설치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야간 이동 시 스위치 조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무선 리모컨으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LED 전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낙상사고 위험을 줄이고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을 설치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취약계층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스마트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읍면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쓸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2026년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블루베리 현장교육
2026. 4. 10.(금) / 장흥군 (주)블루원, 월정블루베리
공성군농업기술센터

곡성 블루베리 선진 재배기술 경쟁력 강화

곡성출하회 농가 장흥군 일원서 노하우 체험 현장교육

곡성군은 최근 장흥군 일원에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블루베리 곡성출하회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교육을 추진하며 산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곡성출하회 농업인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기출하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블루베리 공동선별장 ‘블루원파머스’를 비롯해 육묘장, 시설하우스, 월정블루베리농원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농가들은 선진 농업인의 재

배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했다.

이승화 블루원 농장 대표는 다경보온커튼과 뜰재배 도입을 통해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생산성을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온도·충량 중심 관리와 단계별 온도 조절 등 조기재배 핵심기술을 공유하며 곡성출하회에 적합한 품종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중인 월정블루베리농원 대표는 노지와 시설재배를 병행한 장기 출하체계 구축 사례를 설명하고, 래빗이 품종 중심의 재배관리와 병해 예방을 위한 환경관

장흥,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급

8000명 대상 22~28일 배부

장흥군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경영주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8000여명으로, 총 지급 규모는 약 56억원에 이른다.

올해 공익수당은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상품권은 정책 발행분으로 지역 내 시장, 마트, 음식점 등 장흥군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 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구례,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시행

구례군이 4월부터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상속 절차의 복잡성과 상담 수요 증가로 인한 방문 대기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들은 예약제를 통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제납 및 환급 등 다양한 세

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정된 날짜에 사전 상담 자료를 준비해 재무과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재무과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 직원 교육을 완료했으며, 차질 없는 상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